

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! 시행령 전면 적용 서명운동

"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!"

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쉼을 내어 쉴 수 있는 '제대로 된 휴게시설'은 건강권이며, 인간답게 취급 받는 인권이기도 합니다.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어,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그러나, 노동부는 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

청소노동자, 경비 노동자,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계단 밑 창고나 화장실 한 쪽 구석인 열악한 휴게실에서 쉬고, 그마저도 없어 건설현장에서는 깔판을 깔고 잠시 앉아 쉬는 현실이 계속되어왔습니다. 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로는 열악한 휴게실의 일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.

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다양한 사업장의 조건과 환경에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, 오히려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두었습니다.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휴게실 시행령을 요구합니다!

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우리의 요구

첫째,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, 적용유예를 철폐하고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.

둘째, 휴게시설의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서 최소한의 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

셋째, 휴게시설의 설치 개수, 성별 분리, 거리 등 세부 기준은 노사가 합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.

번호	이름	주소	연락처	서명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
※ 이 서명 용지는 시행령 입법예고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과 함께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